

# [2017 가요계 연말결산] '꽃길' 걸은 新 음원 강자들



2017년 가요계에도 어김없이 '스타'가 등장했다. 특히 별다른 방송 활동 없이 음원 차트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가수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비사이드 앨범 '제로미터'(M)를 공개한 박원은 앨범 타이틀곡 '을 오보 미' 리아프(all of my life)로 5개월 넘게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자신의 연애사를 직접 가사에 담았다고 밝

혀 화제를 모은 앨범의 수록곡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공연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1월과 9월 단독 콘서트를 연 박원은 티켓 오픈 직후 매진을 기록하며 전가를 입증했다.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역시 매진된 상태다.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대상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그룹 원모어친스로

박원 · '정주행' 헤이즈 · '음색 퀸' 수란 등

방송 활동 없이 음원 중심 존재감 드러내

데뷔한 박원은 지난 2015년 솔로 전향 후 무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낸 정규 2집 '1/2'의 타이틀곡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용준형과 함께한 곡 '돌아오지마'로 '역주행' 돌풍을 일으킨 헤이즈는 올해 발표한 대부분의 곡들로 '정주행'에 성공하며 라이징 스타' 자리를 굳혔다.

지난 5월 낸 미니앨범 '///(너 먹구름 비)'의 타이틀곡 '널 너무 모르고 와'도 오고 그래서를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올려 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8월 공개, 서태지의 데뷔 25주년을 맞아 리메이크한 '너와 함께 한 시간 속에서 와' 지난 10월 공개한 박진영과의 듀엣곡 '후회해' 역시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 14일 공개된 케이블TV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OST '좋았을진' 역시 차트 상위권에 선전 중이다.

음원의 인기는 트로피로 이어졌다. 헤이즈는 올해 협업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상과 베스트 힙합 어반뮤직상을 받았으며, '멜론뮤직어워드'에서도 뮤비 10에 이름을 올렸다.

'음색 퀸'으로 통하는 수란 역시 차트 불박이에 등극했다. 지난 4월 낸 싱글 '외인' (WINE)의 타이틀곡 '오늘 취하면' (feat. 장보)과 지난 6월 낸 미니앨범 '워킹' (Walking)의 타이틀곡 '1+1=0' (feat. 단), 지난 11월 낸 싱글의 타이틀곡 '러브스토리' (Love Story, feat. 크리쉬)가 모두 차트 100위권 내에 올리었다.

헤이즈와 마찬가지로 서태지의 데뷔 25주년을 맞아 리메이크한 '슬픈 이별'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드라마 '군주 기변의 주인' '조작' 등의 OST로도 사랑을 받았다.

음원의 인기에 힘입어 수란은 멜론뮤직어워드에서 일엔비/소울상과 핫트렌드상을 받았다. 또 제 25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에서 K팝 가수상을 받기도 했다.

아이돌 중에서는 혼성그룹 카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데뷔 전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누리고 국내에 '역수인' 된 이들은 정식 데뷔 직후 '라이징 스타' 반발에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데뷔 전 프로젝트 싱글인 '온나나' (Oh NaNa), '돈트 리콜' (Don't Recall) '루머' (RUMOR) 등을 공개한 이들은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 결과 이들은 데뷔 전인 지난 5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4개국 10개 도시에서 공연을 열었다.

지난 7월 데뷔 앨범인 '올라 올라' (Hola Hola)를 발매한 후부터는 저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유럽 투어도 진행하며 신 히트곡으로 떠올랐다.

지난 11월 두 번째 앨범 '유 앤 미' (You & Me)를 낸 이들은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

를 기록하며 인기를 드러냈다. 국내 인지도 부족이 숙제로 꼽혔지만, '유 앤 미'의 타이틀곡 '유 인 미' (You In Me)가 앨범 발매 직후 주요 차트 100위권 내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보였다.

보이그룹 웨이브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지난 6월 세 번째 미니앨범 '세레모니' (CEREMONY)를 발매하고 타이틀곡 '예뻐죽겠어'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자작곡들로 체워진 '데모' (DEMO) 시리즈를 내며 실력을 드러냈다.

지난 9월 나온 '데모\_01'의 타이틀곡 '비아크 디스' (Like This)와 지난 달 나온 '데모\_02'의 타이틀곡 '런웨이' (RUNAWAY)로 모두 사랑을 받았다.

특히 멜버 후이의 활약이 돋보였다. 케이블TV Mnet '프로듀스01 시즌2' 출신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네버' (NEVER)와 '에너지틱' (Energetic)을 작곡한 후이는 두 앨범의 타이틀곡에 모두 참여하며 자신의 진기를 입증했다. 후이는 올해 페타곤 멤버 이던 소속사 선배 혐이와 트리플J라는 혼성 유닛을 꾸려 활동하기도 했다.

## 강호동의 전성기는 ing... '1박2일' 시절 부럽지 않다



하게 다가가 아들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국민 예능 1박2일'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 줬다.

'1박2일'로 한창 인기를 누리던 강호동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11년,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호동은

이지않고 방송 트렌드에 맞게 케이블과 종편으로도 발을 뗐었다. 강호동의 부활 신호탄을 쏜 것은 '1박2일'을 함께했던 나영석PD,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 등과 함께 한 '신서유기'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작한 '신서유기' 시즌 1에서 강호동은 TV 방송과는 완전히 다른 인터넷 방송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적극적인 동생들과 비해 매순간 당황하고 난감해하는 '아재'의 모습으로 오히려 큰 웃음을 줬다. '1박2일' 멤버들과 다시 뭉친 '신서유기'로 강호동은 조급씩 날기 시작했다.

이후 강호동은 바로 종편채널인 JTBC로 눈을 돌려 '이는형님'에 출연했다. '이는형님'은 방송 초반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토요일 오후 11시, 너무 늦게 방송이 되는 탓도 있었다. 이후 '이는형님'은 토요일 오후 8시 50분으로 방송 시간대를 변경하면서 시청률에도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형님'에서도 강호동은 이수근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고, 이의 서정훈, 이상민, 김희철, 김영철, 민경훈도 자신의 뒷을 똑똑히 해냈다. 이에 '이는형님'은 6%에 육박하는 높은 시청률로 토요일 저녁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한끼줍쇼' 역시도 '소통' 하기를 좋아하는 강호동의 성격과 안성맞춤으로 현재 MBC '라디오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한끼줍쇼'는 씨름선수였던 강호동을 연예계로 이끈 이경규와 함께 무려 23년만에 처음으로 MC로 뭉쳐 더욱 화제를 모았다. 프로그램 이경규는 특유의 '벼락'으로 강호동을 누르

고, 강호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않은 '소통왕'의 면모로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주고 있다.

강호동의 활약은 '강식당'으로 인해 최근에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강식당'은 '신서유기'에서 멤버들이 장난삼아 했던 말이 현실이 된 프로그램. 이제까지 요리라고는 해본 적 없는 강호동이 메인 요리사로 나서 식당은 운명한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과연 '강호동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반 걱정반으로 TV 앞에 앉아 '강식당'을 봤던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호동 뒷모습을 발견했다.

외로 요리를 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맛형으로서의 리더십 역시 새삼 빛을 발했다. '여러분, 화내지 말아요~' '행보카자고(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등의 말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수근의 잔소리에 뭔가 우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는 듯 말하는 '시과했어요~'는 시청자들에게 빵 터지는 웃음을 주기도 했다.

한 때 끊임없이 '강호동의 위기설'이 나오았지만, 현재 강호동은 그 어떤 방송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고유의 매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방송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주며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려 노력하는 베테랑 방송인 강호동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색다른 웃음을 선사할지 주목된다.

## '언터처블', 반전 소름 박근형 핵심 키



사실을 전해줬다.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묻고 살 테니 진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는 것. 이 말을 전해 들은 진구는 오열했다.

김성균은 자신의 위험한 존재가 최종원(구용찬)과 고준희(구자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최종원을 향한 일격을 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박진우(박태진)에게 최종원이 살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하라고 한 것. 김성균의 뜻대로 판이 돌아가는 듯했지만, 최종원은 VIP에게 전화를 걸어 텔을 했고 위기에서 빠져나갔다.

진구는 박진우로부터 경수진을 죽이이라고 지시한 이가 신정근(용희수)이란 말을 들었다. 신정근 뒤에 김성균과 자신이 아닌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김성균은 신정근에 대해 "장씨 집안의 개일 뿐이다. 주인이 비꾸어서 잠시 헛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새 주인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주인은 비꾸지 않았다. 방송 말미 박근형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언터처블' 1회에서 죽은 것처럼 표현됐지만, 실제론 죽지 않고 김성균과 진구의 모든 걸 지켜왔다. 최종원이 김성균과 진구에 대해 "예전에 하룻강이씨들이 아니다. 벌이 됐다. 하룻강이씨를 벌로 만든 누군가가 있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반환점을 둘면서 2막으로 접어든 '언터처블'. 박근형의 하드캐리가 예고되면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늘의 순서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음력 11월 1일)

▶ 고민하는 문제는 양설이지 말고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청해 빨리 해결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모든 삶의 주인공은 자신이라 믿고 상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점검하라. 10, II, II월생 녹색은 절대 피하고, 검은색으로 단장하라.



▶ 고민하는 문제는 양설이지 말고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청해 빨리 해결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모든 삶의 주인공은 자신이라 믿고 상대를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점검하라. 10, II, II월생 녹색은 절대 피하고, 검은색으로 단장하라.



▶ 자신감을 갖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 한때의 작은 실수만 생각하면 현 위치에서 흔들릴 위험이 따르니 과거 일을 접어두라. 공식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일과 만나 승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 있게 할 때 몇 배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단, 과로를 조심하라. 신병 수가 따른다.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가정에 불만을 표시하는가. 자식이 보고 있음을 염두에 둘 것. 라. 그보다 큰 자산은 없다.



▶ 모든 여건이 만족스럽다고 타인을 적대시하지 말고 유대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라. 자기주장보다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 금전 이득 또한 생길 수 있다. 3, 5, II월생 애정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격. 한 길로 마음을 정하라.



▶ 주어진 여건이 암울해도 밝게 웃고 정진하면 반드시 전화로 할 것. 서부쪽 사람과 순잡고 끈기 있게 노력하라. 3, 5, II월생은 과음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으니 오늘은 일찍 귀가해 자녀와의 대화를 가져봄이 어떨지.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재점검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때 새로운 구상도 생기고 금전적 소득이 있을 듯. ㅅ, ㅁ, ㅊ 성씨 큰 욕심은 화를 불려오니 현 상태에 만족하라. 애정은 답답하다고 타인에게 풀려는 것은 부정이니 자중하라. 길이 있다.



▶ 시작할 때는 의욕과 신념을 가졌지만 갈수록 힘이 드는구나. 애정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으니 어려움이 따르겠다. 여러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마음을 넓게 가질 때 새로운 항로를 열 기회가 올 듯. ㄱ, ㅁ, ㅊ 성씨 자신감을 가지라.



▶ 어려운 고비를 노력해 극복하면 반드시 대성할 수 있다. 어려운 길도 철걸음이 우선이니 시작을 중시하며 실행할 때 꾸준한 발전이 전개될 듯. 6, 7, 9월생 애정은 서로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을 이루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